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26일 수요일 음 12월 24일 (1월)

건강&생활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는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6°C, 낮 최고기온은 9-12°C로 전망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day: 오전 20%, 강수 확률 30%, 오후 20%, 성산 30%, 고산 30%, 서귀포 30%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해돋이 07:34, 해짐 17:59, 달몰림 01:08, 달짐 12:18

식중독지수 관심, 감기지수 높음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4/7°C, 모레 구름 많음 4/7°C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조희수 올리려 경비행기 추락 연출?

미 유티버 고의 사고 의혹

미국의 올림픽 선수 출신 인기 유티버가 시청자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자신이 몰던 경비행기를 고의 추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자신이 몰던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제이쿰.

상공으로 단발 엔진 경비행기인 테일워크래프트 BL6를 몰다 낙산으로 탈출하는 장면과 비행기가 추락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왜 그렇게 낯아빠진 비행기를 구입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급기야 고의 추락시켰을지 모른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NTSB 관계자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고기가 추락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미국 메릴랜드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내내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녔으니 어디에 뿌리 내릴 틈 없이 잠 많기도 옮겨 다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내내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녔으니 어디에 뿌리 내릴 틈 없이 잠 많기도 옮겨 다녔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느라, 그다음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다니느라 항상 희생했던 건 안정이었다. 항상 내년에는 또 옮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지나다 보니 큰 물건을 들거나 오래 걸리는 일을 시작하는 일이 없어 살림이 비교적 가벼운 것이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겠고, 가족도 없는 이 땅에 오래 사면 친구도, 살가운 이웃도 없다는 건

이사 그리고 이별 준비

참 아쉬운 점이다.

지금 사는 곳에 이사 오면서는 이번엔 꼭 정착하리라 다짐을 했기에 이곳에 사는 마음가짐은 과거의 어느 곳들과 달랐다. (비록 월세를 살고는 있으나) 오래 살 곳으로는 어디가 적당할까 하며 이 동네 저 동네 구경도 다니고, 지역 신문도 구독해 읽었다. 환자 진료를 보는 건 기이직으로 똑같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오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왜인지 더 차분해지는 기분은 좋았다. 그런데,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거라기 보다 내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에 가깝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이 차분한 시간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먼 타 주로 이사를 하게 됐다. 꿈꾸던 직장으로 가는 거라 기쁜 일이지만 그동안 정 붙였던 환자들을 두

고 가게 된 건 마음이 아프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도 다른 모든 인연과 마찬가지로 만남과 헤어짐이 있다. 특히 정신과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치료에 몹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환자를 처음 대할 때는 물론이고 어떤 이유에서든 치료의 마무리를 지을 때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환자 중에는 나를 증상에 맞춰 적절한 약을 처방해주는 전문가 정도의 존재로 생각하고 딱 그만큼의 거리감을 두고 대하는 환자들도 있다. 다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본인의 내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를 믿고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환자들도 있다. 그리고 그 환자들과 내가 어떤 관계였든지, 꾸준히 만나오던 의사가 어느 날 떠난다는 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그동안 정 붙였던 환자들을 두

다 떠나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환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진료 때마다 예정된 이별을 이야기하며 환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 돕고, 더불어 나의 마음도 준비하며 또 한번의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

살면서 슬하가 만나고 헤어짐을 겪지만, 문득 돌아보면 헤어지는 일이란 항상 어려운 일이었고 그 어려운 마음을 마주하기 싫어서 피하고 싶지만 했던 것 같다. 나의 마음이 다칠까 지키느라 남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적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 어차피 앞일은 내다볼 수 없는 것. 다시는 이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느니 하는 원대한 계획 말고, 이번에 떠날 때만큼은 이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성숙한 이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보리라 다짐해본다.

열린마당

세정담당관실 올해 세정 핵심 추진과제는



허승남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지난해 자주재원 당초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고, 초과 달성 분은 작년 및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돼 코로나19 위기극복 재원에 보탬이 될 것이다. 자주재원 확보와 더불어 올해 세정담당관실이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과제를 설명하고 각오를 다지기도 한다.

첫째, 자주재원 2조원을 초과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도·행정시 목표액 분담, 도민 세부담 없는 역외 세원 확충, 지방세 징수를 및 정기분 납기내 징수를 제고에 도·행정시 세정부서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징수 TF팀을 운영해 체납액

올 명절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서원득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설 명절을 맞아 대부분은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을 각종 영양제와 종합 선물 세트로 대신한다. 하지만 이번 설에는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을 추천드린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화재에서 연평균(2012-2020년) 주택화재 발생률이 약 18%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6%가 주택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봤을 때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씩 비치하

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거실·주방 등) 마다 1개씩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마트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입 가능하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천장에 별도 배선 설치 없이 나사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 또한 간편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관리도 쉽다. 소화기는 압력 바늘이 녹색 게이지에 있는지 확인하고 가끔 위아래로 흔들어 내용물이 굳지 않도록 해준다. 제조 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주고 감지기는 일정 주기마다 배터리를 교환해 주면 된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소방차 한 대의 능력과 맞먹으며, 감지기의 신속한 알람은 피난·대피를 1분 1초를 앞당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왕래가 적어 고향집 가족의 안전에 관심을 갖지 못한 이번 설 명절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합시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건일 편집국장 조상윤.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페르카 효과. 미생·더덕, 씩씩함, 균형형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